

이당 안병욱 교수의 삶과 철학

김선욱*

- I. 들어가는 말
- II. 이당 안병욱과 숭실대학
- III. 이당 안병욱과 홍사단
- IV. 이당 안병욱과 『사상계』
- V. 이당 안병욱의 저술 활동
- VI. 맺는 말

<국문초록>

이 글은 이당 안병욱 교수 탄생 100주년을 맞아 안교수의 삶과 철학을 조망하는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다. 그는 1920년 6월 20일에 태어나 2018년 8월 26일에 사망하였다. 그는 평생 교육에 헌신하면서 그가 교수로 봉직한 숭실대학교에서의 대학교육 뿐만 아니라 대중을 향한 시민교육에도 큰 기여를 하였다. 그는 특히 홍사단의 창립시절부터 협력하여 사망 시에도 홍사단 장으로 장례를 치를 정도로 홍사단에 큰 기여를 했으며, 1950년대 말부터 1960년대를 관통하여 『사상계』의 주간으로도 큰 기여를 하였다. 1970년대 이후로는 대중계몽을 목적으로 한 저술과 강연에 큰 기여를 하였다.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애민에 족의 정신을 담아 많은 저술을 남기기도 했다.

핵심어 : 안병욱, 숭실대학교, 홍사단, 사상계, 철학

* 숭실대 철학과 교수, 인문대학 학장

I. 들어가는 말

이 글은 올해 이당 안병욱 교수의 탄신 100주년을 맞아 그의 삶과 철학을 조망하며 우리의 삶과 시대를 되돌아보는 목적으로 쓴 것이다.

즐거움의 집이라는 뜻의 호 이당(怡堂)을 사용하는 안병욱 교수는 1920년 6월 20일(음력. 양력으로는 8월 4일) 평안남도 용강에서 태어났다. 선생은 1933년에서 1938년까지 평양고등보통학교를 다녔고, 1939년에서 1941년까지 일본 와세다 대학 제2고등학교를, 그리고 1941년부터 1943년 9월까지 와세다 대학 문학부 철학과 윤리학 전공으로 공부하고 학사학위를 받았다. 이 시기에 동경에서 만나 3일간 함께 지냈던 윤동주를 이당은 평생 잊지 않고 때때로 그의 시를 읊조리시며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었다. 단 3일간의 친교였으나 의기투합한 깊은 만남이 이루어진 시간이었던 것이다. 졸업 후 안병욱 교수는 학도병으로 강제징집을 당하여 중국으로 가야했고, 중국 서주에서 종전을 맞이하고 거기서 새로 세워진 학교에서 잠시 교편을 잡다가 이듬해 귀국하였다.

이당 안병욱 교수는 24세에 고향을 떠나서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실향민이었다. 어느 인터뷰 자리에서 그는 생전에 고향을 방문하여 어디엔가 있을 어머니 묘소에 무릎 꿇고 큰 절을 올리며 통곡을 하고 싶다고 하였다.¹⁾ 고향을 떠나야만 했던 실향민의 뼈에 사무치는 슬픔을 품고 살아 왔던 것이다.

1980년 8월 12일에 직접 작성한 송실대 인사기록카드를 보면 당시 안병욱 교수의 키는 167cm, 몸무게는 61kg이었다. 그는 슬하에 일녀 삼남을 두었고 2013년 10월 7일에 향연 94세로 소천하였다. 부인 김광심 여사는 2018년 8월 26일에 소천하였고, 지금 두 사람의 묘소는 강원도 양

1) 1994년 6월 2일 녹화하고 12일 방영된 EBS <나의 학창시절>에서 인용.

구근에 있는 양구인문학박물관 뒤편 정원에 위치해 있다. 양구인문학박물관은 ‘이해인 문학의 집과 김형석·안병욱 철학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2012년에 개관하였다가 2018년에 ‘문학의 집’으로 또 곧바로 다시 ‘양구인문학박물관’으로 명칭을 바꾸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박물관 정면에는 ‘인문학박물관’ 건물이 있고 왼편에 비스듬히 ‘김형석·안병욱 철학의 집’이라는 이름이 붙은 새로운 건물 안에 이당 선생의 유품들과 김형석 선생의 소장품 등이 전시되어 있다. 일층과 이층을 잇는 계단의 창을 통해 이당 안병욱 교수 내외가 문헌 정원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II. 이당 안병욱과 숭실대학

이당 안병욱 교수는 1958년에 숭실대학 철학과에 부교수로 부임하여 1985년 정년하실 때까지 숭실대학 철학과에서 교편을 잡았다. 그 이전에는 1946년 10월에서 1948년 9월까지 경기고등학교에서, 또 1949년에서 1954년까지는 서울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지냈고, 1954년에서 1956년까지는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에서 1956년에서 1958년까지는 연세대학교에서 전임강사로 강의한 뒤, 1958년 4월부터 숭실대학에 부교수로 부임해 1963년에는 정교수가 되고, 이후 1985년 8월에 정년퇴임할 때까지 숭실대 교수로 지냈다. 교수로서의 활동 외에도 이당 선생은 전국으로 다니며 다양한 계층을 막론한 대상들을 향해 무수한 강연을 하였는데, 그는 그 강의를 듣고 또 그의 책을 읽은 모든 이들을 제자로 여겼다.

숭실대 철학과에 봉직하시는 동안 안병욱 교수는 <철학개론> <플라톤> <인도사상> <철학연습> 등의 교과목을 강의하였다. 그의 1970년대 초의 모습은 당시 숭실대 철학과의 모습을 소설 형식을 빌어 기록한 김

신(본명 김필신)의 『대학별곡』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그때 입학식과 더불어 나는 정식으로 대학인이었다. 철학과 학생이었다. (중략) 나는 무엇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중략)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3월은 만남에 대한 강렬한 기대와 꿈으로 가득 차 있었다. 철학사(哲學史) 첫 강의 시간에 안병욱 교수가 말했다. “플라톤은 평생에 세 가지 것을 감사드렸습니다. 그 첫째는 그가 야만족이 아니라 희랍인의 아들로 태어났음을, 둘째로는 그가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태어났다는 점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소크라테스와 동시대에 태어나 그와 만나졌음을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 대학에서 그 누구를 플라톤의 소크라테스와 같은 스승으로 또는 벗으로 만나질 것인지, 그건 여러분의 정신에 달린 문제입니다. 누구든 자기의 정신에 합당한 벗을 만나질 것입니다. 행운이 있기를 빕니다.”²⁾

필자의 학부 2학년 시절인 1980년, 긴 방학을 이용해 울릉도를 다녀온 한 벗으로부터 들은 에피소드가 있었다. 울릉도를 가기 전 포항의 해변에서 민박으로 하루를 머물 때 민박집 주인이 어느 학교 학생이냐고 물었고, 벗은 그에게 “숭실대 학생이요”라고 대답을 했었다. 그러자 주인은 바로 “아, 숭실대면 안병욱 교수님이 계신 곳이네요.”라고 반응을 하였고, 벗은 “제가 안병욱 교수님의 제자입니다. 철학과 학생이에요.”라고 대답을 했다. 이에 주인은 자신이 존경하는 안병욱 교수의 제자가 자신의 집에서 하루를 머무는 것이 좋아서 그날 밤 직접 잡은 물고기로 좋은 대접을 해 주었다고 한다. 이처럼 숭실대 철학과와 이당 선생은 하나처

2) 김신, 『대학별곡』 소설문학사, 1983, pp.33~34. 작가는 이 책에 등장하는 실제 인물들의 이름을 한 글자씩 바꾸어 등장인물의 이름으로 사용했다. 안병욱 교수의 성명은 이 소설에서 ‘안성욱’으로 되어 있다.

림 인식되었고, 철학과 학생들은 그의 음덕(陰德) 가운데 있었다.

이당 안병욱 교수는 숭실대 재직 기간 중 1961년 9월부터 이듬해 6월 까지 안식년을 가지면서 미국 아이오와 주에 있는 코넬 칼리지에서 한국 철학과 중국철학을 강의했다. 그리고 이 기간을 이용하여 당시의 세계적인 철학자들과 저명인사들과의 만남을 가졌다. 이때 만난 사람들 가운데는 미국에서 Morton White, Quine, J. Wild, R. Carnap, Northrop 교수 등이, 그리고 영국에서 B. Russel 경 등이 있었다. 이후 안병욱 교수는 수차례 인문과학연구소장을 역임하였다.

1980년 5월 광주민주화혁명 이후 대학이 폐쇄되었다가 다시 2학기에 문을 열었을 때 당시 양심적 교수들의 서명사건으로 철학과의 기둥이던 조요한 교수가 강제 퇴직을 당한 어려운 시절에 철학과 학과장을 담당하였다. 1981년 봄, 필자가 철학과 과대표로 있을 당시 장승백이에 있던 어느 한식당 2층에서 전체 철학과 학생들의 개강 모임을 가졌는데, 그때 이당 선생은 학과장으로서 그 모임에 참석하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말씀을 주었고 또 금일봉을 전달하며 학생들이 식사를 하는데 보태어 쓰도록 하였다. 그해 1981년 1월 2일에는 동료 학생들 네 명이 함께 삼선교 인근의 이당 선생 사가로 세배를 갔다. 이층집의 이층 서재에서 세배를 한 후 우리들은 춘원이 쓴 『도산 안창호』를 한 권씩 선물로 받았다. 선생은 숭실대 흥사단의 지도교수였는데, 당시 험악한 전두환 정권 하에서 소위 ‘불온 서클’들이 모두 학교에서 퇴출되었을 때에도 흥사단은 선생이 방패막이 역할을 해 주어서 숭실대에서 계속 존속할 수 있었다.

이당 선생은 와세다 철학과 학부를 졸업하고 그 이후 학위과정을 하지 않으며 독학을 하였기 때문에 정년 때까지 학사학위로 있다가 정년을 하던 해에 명예문학박사 학위를 숭실대와 인하대학교로부터 각각 받았다. 1960년대의 학계에는 학사학위를 소유한 채로 강의를 하던 교수들의 수

가 적지 않았다. 그래서 국가에서 대학 내의 학위 질서를 수립하기 위해 사실상의 실력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위를 갖지 못했던 교수들로 하여금 학위논문을 쓰게 하고 이를 근거로 박사학위를 주는 제도를 일시 시행한 적이 있었다. 이 기회에 제공한 박사학위를 구제(舊制) 박사라 불렀다. 하지만 이 제도에 동조하지 않고 정년에 이르기까지 학사학위만을 유지한 경우가 있었는데, 안병욱 교수는 후자의 경우에 속한다.

이당 안병욱 교수는 1998년과 2003년 두 차례에 걸쳐 자랑스런 숭실인 상을 수상하였고, 1998년에 역시 도산인상, 2007년 11월에는 인제인성대상, 2009년1월에는 제8회 유일한 상을 수상하였다.

Ⅲ. 이당 안병욱과 흥사단

안병욱 교수는 흥사단 활동을 통해 소년시절부터 받았던 도산 안창호의 영향력을 사상적으로 다시 전파하고 그 뜻을 조직을 통해 이어가려 하였다. 선생은 문학 소년이던 중3 시절에 이광수의 <무정>을 읽고 감동 받고 정신적 눈이 뜨임을 경험하였다. 그때의 감격을 안고 그는 춘원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할지 질문을 던졌다. 놀랍게도 춘원은 그에게 한 장짜리의 길지 않은 답신을 보내어 “군 자신이 성인이 되라. 성인이 되는 뜻을 세우라.”는 격려의 말을 써 주었다.

이당 선생은 어린 시절 춘원의 책을 통해 삶이 무엇인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등의 질문을 하게 되고, 철학의 길로 들어가게 되었다. 고향을 떠나 일본에서 수학하는 시절에 고향을 방문할 때면 반드시 서울의 춘원의 집을 방문하여 만남을 가졌다. 도산 안창호를 알게 된 것도 이 시절이고 또 도산에 대해 깊이 알게 된 것도 춘원이 쓴 『도산 안창호』라는

책을 통해서였다. 유감스럽게도 이당 선생은 개인적으로 도산 안창호를 만날 기회를 갖지는 못하였다. 선생은 도산을 만나지 못한 안타까움과 춘원의 변절에 대한 안타까움을 늘 오랫동안 마음에 갖고 있었다. 그러나 춘원을 통해 배우기 시작한 도산의 정신을 선생은 홍사단 활동을 통해 현실에 구현하려는 자신의 노력을 열정적으로 기울였다.

홍사단은 도산 안창호 선생이 미국에 가 있는 동안 재미 한인의 정신을 바로 세우고 국가의 안위를 걱정하는 기관으로 설립되었다. 일제 때 강제 해산되었으나 해방 후 다시 재건되었다. 그러다가 1961년 5·16 군부 쿠데타에 의해 집권한 박정희 정권에 의해 2년간 활동을 중지 당하게 된다. 1963년은 도산 선생이 1913년 샌프란시스코에서 홍사단을 창립한 지 50주년 되는 해였는데, 이때 그의 부인 이혜련 여사가 도산과 함께 도미한 이후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국을 방문하여 도산 서거 25주기 추모식에 참석하고 도산 묘소에 헌화 참배한 해이기도 했다. 이 해에 당시 홍사단 이사회장이었던 주요한 선생이 1세대 단우들과 논의를 거쳐 청년 학생을 중심으로 아카데미 운동을 펼치기로 하고 이를 조직하기 위한 “세포의 조직과 운영 요강”을 9월 1일에 발표함으로써 홍사단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이에 따라 홍사단은 “조직을 전국적으로 확대 발전하고, 각 지방에 청년, 대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소년으로 구분하여 아카데미를 조직하여 활동”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서울 분회를 조직하고 대학생아카데미, 고등학생아카데미를 서울 지역에 창립하였다. 그러던 중 1965년에 송실대 안병욱 교수를 아카데미 상임지도교수로 초빙하여 지도하도록”³⁾ 하였다. 이렇게 이당 선생은 홍사단과 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된다. 김재실 도산기념사업회 회장은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3) 김재실, 「서울대아카데미 태동 전야를 회상하며」, 서울대학교아카데미 50년사 발간위원회 저, 『진리와 정의를 찾다: 서울대학교아카데미 50년사』, 홍사단, 2020, p.145.

[서울대] 문리대의 학림제 때 안병욱 교수를 초청하여 학내 서클인 송우회 주최로 ‘도산 안창호 선생의 생애와 사상’을 주제로 한 강연회를 문리대 강당에서 개최했는데, 입추의 여지가 없이 청중들이 모여들었다. 강연회 개최 인가를 내준 문리대 직원들은 물론 학생들도 놀랐고, 안병욱 교수도 무척 기뻐했다.⁴⁾

이후 이당 안병욱 교수는 홍사단 아카데미 활동에 크게 기여하였고, 1965년에 홍사단 이사직을 맡기 시작하여 1983년에는 홍사단공의회장에 선출되었고, 1987년에서 1989년까지 홍사단 이사장을 역임하였으며, 1989년부터 홍사단의 고문직을 맡았고, 1989년 도산 아카데미 연구원 설립대표를 역임하였다. 또한 1983년에는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이사를 역임하기도 했다. 홍사단에 있어서의 선생의 기여는 홍사단 아카데미를 통한 지속적인 교육으로 도산사상을 후대에 전하고, 강연을 듣는 이들에게 바른 생각을 심어주는 역할을 해온 것이었다.

2008년 6월에 필자가 지인들과 함께 워커힐 인근 이당 선생 덕을 방문하였을 때, 선생은 마침 그때 홍사단을 위해 쓴 휘호 한 편을 보여주었다. 홍사단의 어떤 분이 부탁을 하셔서 쓴 글이라며 보여 준 글귀는 “平生學習強國”였는데, 그 뜻이 “평생 배우고 공부하는 강한 나라가 되라는 것”이라고 하였다. 평생 함께해 온 단체인 홍사단에 전달하는 말로 쓴 것이라 했다.

이당 선생의 다산 및 홍사단의 이해는 춘원 이광수가 쓴 『도산 안창호』라는 책을 바탕으로 한다. 이 책은 홍사단에서 오랫동안 교육용 교재로 사용되었는데, 춘원의 친일 경력으로 인해 홍사단에서는 춘원의 이름을 앞표지에서는 없앤 채 교재로 사용했다.⁵⁾ 그러다 2004년에 『안창호 평전』

4) 위의 글, p.146.

을 새롭게 간행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이당 선생이 편집한 도산의 일화들, 도산의 일기와 편지 발췌본, 그리고 도산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남긴 김구 선생의 애도사가 더해져 있다. 이렇게 춘원을 감싸고 또 도산의 정신의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는 작업을 통해 도산의 정신이 분명하게 후대에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인 것이다.

이당 선생이 홍사단을 위해 써준 휘호의 내용을 다시 생각해보면, 선생이 지난 수십 년간 대중적 강사로서 또 수필가로서 이 땅의 민중을 위해 일해 온 일의 본질을 가름해 볼 수 있다. 그것은 도산의 정신을 이어받아, 당신의 시대에 맞는 정신세계를 새롭게 구축함으로써 민중을 계몽함으로써 나라를 바로 세우려 했던 것이었다고 말이다.

IV. 이당 안병욱과 『사상계』

이당 안병욱 교수의 사회적 활동으로 흥미롭고 주목할 만한 것은 『사상계』와 관련한 활동이다. 『사상계』는 민족통일문제, 민주사상의 함양, 경제발전, 새로운 문화 창조, 민족적 자존심의 양성 등을 편집의 기본 방

5) 그런데 이후 홍사단에서는 이러한 점에 대해 내부적인 비판과 반성이 있었다. 비판의 핵심은, 춘원에 의해 이해된 도산 사상에는 춘원의 계몽주의적 모더니즘, 혹은 친일 근대화론이 배어 있다는 것이다. 다음의 인용문은 이러한 비판 의식을 여실히 보여준다. “도산 선생은 조국의 광복을 위해 인물도 기르고 산업도 부흥시키자고 말씀하셨는데, 춘원은 거꾸로 근대화를 위해서는 일본의 강점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았다. 가치가 전도된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흐름은 시대가 변했음에도 그대로 이어져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사고방식에서 보면 근대화, 즉 서구화만 되면 저절로 발전적인 민주사회는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여겨졌을 것이다. 일본강점기에 근대화만 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고 친일을 한 것이나 박정희 시대 때 근대화만 되면 발전적인 민주사회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본 것이나 거기에는 서로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는 것 같다.” 이범, 「홍사단 운동의 철학적 기초」, 2005년 6월 11일 홍사단 강당에서 있었던 <홍사단운동연구소 제5차 비전포럼> 발표문에서 인용. <http://www.yka.or.kr/> 참조.

향으로 한 월간 사상 잡지였다. 1953년 4월에 장준하가 인수한 뒤 처음에는 A5판 100면 내외로 발행되다가 400면 내외로 증편하였으며, 창간호 3,000부가 발간과 동시에 매진될 정도로 전후(戰後)의 사상적 자양으로서 1950년대 지식인층 및 학생층 간에 폭발적인 인기를 모았었다. 특히, 제3공화국 때 저항적·정치비판적 민족주의 논조에 비중을 둔 정치평론이 빈번하여짐에 따라 정치탄압의 수난을 당하게 되고, 발행인 장준하가 정계에 진출함에 따라 1968년에 발행권이 부완혁에게 넘어갔고, 그 뒤 계속되는 경영난을 겪다가 1970년 5월에 김지하(金芝河)의 시 <오적(五賊)>을 게재한 것이 문제되어 당국의 폐간 처분을 받아 통권 205호를 끝으로 1970년 9월 폐간되었다.⁶⁾

『사상계』에서 이당 선생은 1954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였고, 최초의 글로 루우썬 프라이스의 「빈곤의 족보」라는 글을 번역하여 게재하였다. 1955년 1월에 들어 장준하 1인 편집 체제를 마감하면서 이당 선생은 장준하, 엄요섭, 홍이섭, 정병욱, 정태섭, 신상초, 강봉식 등과 함께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같은 해 10월호부터는 지면을 200여 면에서 300여 면으로 늘이면서 상임편집위원 체제를 갖추었다. 상임편집위원이란, 당시 학교 강의시간 외에는 가급적 매일 사상계사에 출근하여 일하는 위원으로, 이당 선생과 김준엽 교수가 담당하였다. 또한 지면을 사회과학, 교양, 문학예술의 3개 부분으로 나누어 사회과학은 역사를 전공한 김준엽 교수가, 교양은 철학을 전공한 이당 선생이, 또 문화예술은 소설가이자 주간이 김성한이 담당하였다. 1956년에 들어와 이당 선생은 주간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1958년 5월에 『사상계』 편집위원이 보강되었는데, 이때 명시된 편집진 전체 명단은 다음과 같았다.⁷⁾

6) 『사상계』의 특색과 역사는 blog.naver.com/kwank99?Redirect=Log&logNo=30024010980에서 가져옴.

주간: 안병욱

상임 편집위원: 김준엽, 성장환

편집위원: 김상협, 김하태, 신상초, 오몽, 유창순, 이상구, 이종진, 장경학,
정병욱, 한우근, 현승중, 황산덕

1958년 8·15광복 14주년 되는 해에 기념호인 8월호에 함석헌 선생은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라는 글을 실었고 그로 인해 『사상계』는 필화를 겪게 된다. 이 일로 함석헌 선생은 20일간 구속을 당했고, 사장 장준하와 주간 안병욱 선생은 경찰에 연행되어 시달림을 받았다.⁸⁾

이당 선생은 1970년에 폐간될 때까지 『사상계』에 총 88편의 글을 올렸다.⁹⁾ 이는 번역 6편과 저술 82편을 포함한 것인데, 이 가운데는 현대 철학사상을 소개하는 글들이 주종을 이루어 75편에 이르고, 주요 사상가에 대한 소개의 글을 번역한 것이 모두 7편, 그리고 서평이 4건이다. 당시의 시국과 사회, 정신적 문제에 대해 좌담을 하고 기록한 좌담회 기록 7편은 이 숫자에서 제외했다. 주제별로 보면, 철학자를 포함한 사상가 및 철학적 개념과 사상을 소개한 글이 57편이며, 역사 및 세계관의 문제를 다룬 것이 4편, 그리고 한국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글이 4편이었다. 그밖에는 수필과 좌담 기록문이다. 『사상계』의 마지막 편인 1970년 5월호에 게재된 이당 선생의 글의 제목은 「자유의 철학」이었다.

7) 박경수, 『장준하: 민족주의자의 길』 돌베개, 2003, pp.264-269.

8) 위의 책, p.270.

9) 글 뒤편의 목록 참조.

V. 이당 안병욱의 저술 활동

이당 안병욱 교수의 저술 작업은 1958년 『현대사상』(영신문화사)의 출간으로 시작되었다. 그 작업은 2007년에 간행된 『철학의 즐거움』을 끝으로 한다. 이 글을 위해 조사한 바로는 그동안 수차례 발간된 『안병욱 전집』이나 『안병욱 선집』을 제외하고 단행본의 출간이 모두 59권에 이른다. 하지만 선생 본인과 부인은 그 숫자를 49편이라고 셈하고 있었다. 59권의 내용을 따져보면, 내용의 중복과 중간을 제외한 양심적 숫자가 49권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당 선생은 종종 자신의 키높이 만큼의 책을 쓰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고 말하곤 했다. 2008년 지인들과 함께 이당 선생 자택을 방문했을 때, 선생은 지금까지의 저술들을 쌓으면 당신의 가슴 정도까지 올라온다고 했다. 물론 이는 중간(重刊)된 책들은 모두 빼고서 한 말이다. 선생을 찾아온 필자와 지인들이 “중간본과 전집류까지 합하면 선생님 키 보다 훨씬 높이 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선생은 손사래를 치시며 그렇게 셈하면 안 된다고 하였다. 이당 선생은 자신의 저술의 셈을 정직하게 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난 1970년대에 이당 안병욱 교수의 저술은 청년들 사이에 대단한 인기를 누렸고, 주요 저서들이 중간되거나 또는 전집의 형태로 다시 발간되고 판매되어왔는데, 선생이 마지막에 내놓은 저술들도 적지 않게 판매되었다. 마지막 저술인 『철학의 즐거움』의 편집을 맡아 이당 선생을 2007년 10월부터 가까이 보았다는 김자경은 이 책이 <한글과 한자>라는 월간지에 이당 선생이 기고한 글을 모아서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책을 출간한 출판사인 계명사의 사장은 젊었을 때 이당 선생의 지도를 받아 본 적이 있는 제자라서 선생의 글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남달랐다고

한다. 이 책이 발간된 1년 동안 인쇄본 3,000부 중 2,600부 가량이 판매되었으며, 주요 독자는 이당 선생을 기억하는 50대가 많았다고 했다. 다른 출판사에서는 이런 시기에, 이런 독자들에 의한 책의 판매 기록이 매우 놀랍다고 말했다고 한다. 출판사의 다른 관계자는 흥사단에서도 홍보를 자진해서 해주고, 후원의 밤에는 200권씩 사다가 대판을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판매 개시 후 출판사로 “안병욱 선생님께서 아직도 강의를 하시는가?”, “현재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가?” 등의 문의 전화가 종종 왔다고 한다. 특히 “깊이가 느껴지지 않는 요즘 젊은 세대들의 성향이나, 각박한 삶, 깊이 없는 대중서에 질려있던 터에 안병욱 선생님의 글을 다시금 접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는 말을 전해 오기도 했다고 한다. 출판사 측에서는 이 책이 중·고등학생들에게 많이 읽히기를 기대해서 학교를 대상으로 홍보를 많이 했는데, 의외로 (혹은 예상대로) 주요 독자층은 50대라 안타깝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다고 말을 전했다.¹⁰⁾

이당 선생의 저술 및 저작 활동의 성격을 보면, 활동의 초기가 되는 1950년대의 중후반에서 1960년대 중반까지는 철학사상 전반에 걸쳐 소개를 하는 특성이 나타난다. 저술의 초기 목록에는 파스칼과 키르케고르 등이 포함이 되고, 『사상계』를 통해 소개한 철학자들은 주로 현대사상가, 특히 실존주의 사상가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범위는 서양사상 전반에 걸쳐 있다. 그러나 그 이후의 글은 주로 살아가면서 필요한 교훈 중심의 저술들이 주종을 이루게 된다.¹¹⁾

이당 선생의 글을 읽노라면, 수많은 고전들과 사상이 그의 정신 속에서 녹아내려 새롭게 정리되고 새로운 언어로 옷 입고 다시 태어나는 모

10) 김자경 및 출판사 관계자들과의 대화 내용은 당시 송실대학교 철학과 대학원 석사과정에 있던 백소운 변호사의 전화 인터뷰에 근거한 것이다.

11) 글 뒤편의 저술 목록 참조.

습을 보게 되어 실로 경이와 감동을 느끼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선생의 천재성은 다양한 사상들을 소화해 내어 자신의 언어로 다시 형상화하는 능력, 그리고 인간과 삶의 여러 측면들을 빠트림 없이 바라보며 그에 필요한 관점들과 원리들을 적절히 빈틈없이 서술해 내는 능력에 있다고 보인다. 초기의 철학적 저술들에서 표현된 사상의 에센스들과, 본인이 존경하는 사상가들의 말과 행적, 그리고 오랜 시간동안 그 가치가 검증되어 온 고전들의 내용이 나름의 방식대로 소화되어 자신의 독특한 어법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이러한 이당 선생의 저술들에 나타나는 사상적 틀을 스스로 정리한 것이 『인생론』 <프롤로그>에 나타난다. 그의 『인생론』은 인생을 바라보는 여러 관점에 대한 서술로 이루어져 있다. 그 관점들의 중요성이 다음과 같이 서술된다.

우리는 올바른 생명관을 가질 때 나의 생명과 남의 생명을 바로 대할 수 있다. 우리는 올바른 자아관을 가질 때 나는 나의 자아를 옳게 실현할 수 있다. 우리는 올바른 인생관을 가질 때 나의 인생을 보람 있게 살아갈 수 있다. 우리는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때 올바르게 행동하고 생활할 수 있다. 우리는 올바른 직업관을 가질 때 자기의 직업에 충성을 다하고 일하는 기쁨을 느낄 수 있다. 우리는 올바른 행복관을 가질 때 행복한 인생을 건설할 수 있다. 우리는 올바른 민족관을 가질 때 위대한 민족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올바른 역사관을 가질 때 훌륭한 역사를 창조할 수 있다. 우리는 올바른 국가관을 가질 때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 수 있다. 우리는 올바른 자연관을 가질 때 자연을 아끼고 사랑할 수 있다. 우리는 올바른 문명관을 가질 때 평화로운 세계를 건설할 수 있다.¹²⁾

12) 안병욱, 『인생론』 (도서출판 아카데미, 1978), p.16.

이 단락을 분석해 보면 모두 11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각의 문장은 모두 “우리는 올바른 ~관을 가질 때”로 시작해서 “~할 수 있다”는 말로 끝난다. 각 문장은 “~때”라는 조건문을 가지며, 그 조건이 갖추어지면 어떠한 일이 이루어진다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그 11개의 조건에 해당하는 관점은 생명관, 자아관, 인생관, 가치관, 직업관, 행복관, 민족관, 역사관, 국가관, 자연관, 문명관 등이며, 이런 관점들을 올바로 가질 때 각각의 관점에 해당하는 영역을 제대로 된 모습으로 일구어낼 수 있다는 선언을 담고 있다.

이당 선생의 글과 말의 특징은 이러한 대구들의 나열을 통해 삶의 다양한 면모를 돌아보게 만들고, 각각의 삶의 영역을 통시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독자나 청자는 가지게 된다. 그의 말이 담고 있는 가치관과 지향성은 1950년대의 국난 극복기를 지나 국가 건설과 민주화의 기초를 다지는 시점에 필요한 성격을 갖고 있다. 민족적으로 자부심을 갖고, 과거 나라 뺏긴 시대를 돌아보며 ‘오늘’의 우리의 삶에 감사함을 가지며 개인적인 삶과 사회적 삶, 그리고 국민으로서의 삶을 다져가는 시대에 필요한 말들을 선생은 던져 주었던 것이다.

물론 이런 내용들이 오늘의 젊은이들에게 글자 그대로 먹혀들기는 어려울 것이다. 청년들의 개인주의적 사고와 민주적 평등의식, 그리고 시민적 각성 등은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력하며, 따라서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충고는 시칫말로 꾀대의 말씀이 되기 십상이다. 하지만 과연 그렇기만 한가. 서울대에서 정치철학을 가르치는 지인은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종종 안병욱 선생의 저술들을 읽고 들어간다고 하였다. 이유인즉, 수업시간에 단지 지식만을 전달할 것이 아니라 삶에 필요한 이야기들을 선배로서 들려주려 할 때, 이당 선생의 글은 그런 통찰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다. 어떤 가르침은 시대에 맞게 바꾸어 새롭게 들려주면 될

일이지만, 삶을 구성하고 있는 다면성을 조목조목 짚어내고 그에 걸맞은 금과옥조를 적절하게 제공하는 데 있어서 이당 선생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앞서 분석한 대로, 11개의 관점들을 일일이 짚어내며 우리에게 올바른 관점을 갖기를 요청하는데, 그 구체적인 옳음은 우리가 채울 수 있을 것이지만, 그러기 위해서도 11개로 구분된 삶의 면모들을 빠트리지 않고 반추하고 살피는 것은 이당 선생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고, 그런 정리 정돈된 가르침을 주는 사상가는 그동안 지상에 그리 많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당 선생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책을 쓸 수 있었을까? 다음의 에피소드가 하나의 답을 담고 있는 것 같다. 2008년 방문 당시, 부인 김광심 여사가 커피를 대접해 주었는데 그때 커피를 앞에 두고 이당 선생은 잠시 기도하자고 하였다. 그는 기도를 통해 제자들과의 만남에 감사하였고, 차를 나누며 나누는 대화의 자리에 좋은 생각이 떠오르도록 해 달라고 기원을 하였다. 그렇다. 그 많은 책의 내용들이 선생의 머릿속에서 떠오른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당 선생은 천재적인 저술가인 것이다.

책, 그리고 저술 작업에 대한 선생의 애정은 각별하다. 선생은 인간이 만든 것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은 책이라고 믿었다. 위대한 것은 책 속에 있기 때문이다. 이당 선생이 즐겨 썼던 경구 가운데 “That which remains forever is a good book.”라는 말이 있다. 선생은 요즈음에 나오는 책들 중 재미있는 책은 많지만 좋은 책이 잘 없는 것 같다는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좋은 책은 유행을 초월하는 책이라는 것이 선생의 믿음이었다. 책과 관련하여 율곡과 퇴계에 대해 내린 평가는 흥미롭다. 율곡은 우리가 읽을 만한 책을 썼던 반면, 퇴계는 혼자 공부를 한 사람이고 후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책을 쓰지는 않았다고 하였다. 그런 점에서 선생은 율곡의 저술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후세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을 쓰려고 유행을 따르는 것은 좋은 저술가의 일은 아니라고 하였다.

유행은 흘러가는 것인데, 책은 좋은 상태를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당 선생은 출판사로부터 책을 재미있게 써 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았지만, 재미있는 글은 생명이 없다고 하였다. 재미를 주는 책이 아니라 감격과 감동을 주는 책이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것이다. 이당 선생은 춘원이 쓴 『유정』과 『무정』은 지금도 감동을 준다고 하였다. 그런데 선생이 이런 말들을 하는 가운데, “좋은 책을 쓰는 데는 타고난 genius(천재성)가 있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던 부분은 흥미로웠다. 그 말을 듣는 우리의 눈에는 그 천재가 바로 이당 선생 자신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VI. 맺는 말

이당 안병욱 교수의 가르침 속에 성장해 온 송실대 철학과는 전통적으로 실천적 정신이 강하였다. 송실(崇實)이라는 이 대학의 교명(校名)은 실용성을 추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진리를 숭상한다(to venerate truth)”라는 의미이다.¹³⁾ 실(實)은 허(虛)의 반대말로서 헛된 것이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는 대학이라는 의미가 송실대학의 건학이념에 담겨 있다. 이런 송실의 정신은 철학이 실천으로 검증되어야 하며, 삶 속에서 실천되고 성숙되는 철학만이 진정한 철학이라는 믿음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것은 이당 선생이 『사상계』를 통해 한국 사회에 소개하였던 미국의 프래그머티즘의 정신이기도 하다. 이런 정신이 어떻게 계승되어야 할 것인지는

13) 리처드 베어드, 송실대학교 뿌리찾기위원회 역주, 『윌리엄 베어드』 송실대학교 출판국, 2016, p.251.

이당 선생의 제자들의 과제로 남아 있다.

끝으로, 『사상계』 1966년 9월호에 게재된 선생의 「나와 너의 윤리」라는 글의 내용을 살펴보며 이 글을 마무리 해보자. 이 글에서 이당 선생은 인생이 관계의 체계임을 설명하고 있다. 우리는 수많은 관계의 맥락 가운데 살고 있는데, 공감을 나누는 나와 너의 관계, 사물 속에서 우리의 삶이 이어지는 나와 것의 관계, 그리고 궁극적 근원자와 이루어지는 나와 님의 관계, 이 세 개의 기본적 관계로 인생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나와 님의 관계는 종교적 관계요, 나와 너의 관계는 윤리적 관계, 그리고 나와 것(物)의 대물적 관계는 경제적 관계를 만들어 내는데, 이 관계는 각각 외경(畏敬), 신의(信義), 이용(利用)의 원리가 작동한다고 설파하고 있다. 아마 이것이 선생이 이해하는 세계의 기본 틀이라 생각이 된다.

이 가운데 특별히 주목해보고 싶은 구절은 나와 님의 관계에 대한 다음의 구절이다.

우리의 마음을 닦고 인간을 純化시키는 것이 종교다. 종교는 우리에게 영원을 향하는 눈을 길러주고, 사랑과 義의 정신을 가르쳐 준다. 우리는 종교에서 有限者다운 자각과 겸손을 배우고, 남을 용서하는 관용의 정신을 본받는다. 安心立命의 法悅을 느끼고 구원의 희망을 갖는다. 종교는 우리에게 인생의 높은 척도와 깊은 次元과 고귀한 이상을 제시한다. ... 有限者인 우리는 유한자다운 겸허한 마음으로 神의 소리를 듣고 佛의 말씀을 배우고 最高實在의 빛을 찾아보자. 저마다 畏敬의 정신으로 神, 佛 앞에서 공부를 하자. 그것이 絕對倫理의 핵심이다.¹⁴⁾

14) 안병욱, 「나와 너의 윤리」, 『思想界』 1966년 9월호, pp.90-91.

외경의 정신으로 신 앞에 서자는 말은 명백히 키르케고르의 ‘신 앞의 단독자’의 정신을 의미한다. 앞서 언급한 지인들과 함께 선생을 찾아갔을 때 진심으로 놀랐던 부분은, 선생이 갑자기 모두에게 기도하자고 하며 스스로 기도를 이끌었던 일이다. 그런 경험이 있었기에 이당 선생이 소천한 뒤 양구군 철학의 집에서 있었던 장례의 절차가 기독교적으로 진행되었을 때 필자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이 글을 준비하면서 위의 구절을 『사상계』에서 읽었을 때, 선생의 마음에 깊은 영적 세계가 일찍부터 형성되어 있었음을 느낄 수 있었다.

▣ 부록

1. 이당 안병욱 교수 저작목록

	초판 도서명	증보개정 및 재출간	출판사	출판년
1	<현대사상>	-	영신문화사	1958
		<철학개론> 증보개정	삼중당	1964
		<현대사상>	삼육출판사	1970
2	<키엘케골>	-	사상계사	1959
		<키엘케골> 증보개정	지문각	1966
		<키에르케고르 사상>	삼육출판사	1973
3	<사색노우트>	-	동양출판사	1961
		<삶의 보람을 찾아서>로 <안병욱 에세이 선집> 수록	삼성출판사	1972
		<안병욱 에세이 선집> 수록	삼육출판사	1984
4	<사색인의 향연>	-	삼중당	1962
		<안병욱 에세이 선집> 수록	삼성출판사	1972
		<안병욱 에세이 선집> 수록	삼육출판사	1984
5	<알피와 오메가>	-	신태양사	1963
		<정신의 순례>로 <안병욱 에세이 선집> 수록	삼성출판사	1972
		<안병욱 에세이 선집> 수록	삼육출판사	1991
6	<마음의 창문을 열고> (구미기행록)	-	삼중당	1963
		<안병욱 에세이 선집> 수록	삼성출판사	1972
		<안병욱 에세이 선집> 수록	삼육출판사	1984
7	<철학 노트>	-	경지사	1963
		<안병욱 에세이 선집> 수록	삼성출판사	1972
		<안병욱 에세이 선집> 수록	삼육출판사	1987
8	<빠스칼>	-	지문각	1964
		<빠스칼 사상> 증보개정	삼육출판사	1973
9	<행복의 미학>	-	장학당	1966
		<행복의 미학>	삼육출판사	1968
		<안병욱 에세이 선집> 수록	삼성출판사	1972
10	<인생은 예술처럼>	-	민중서관	1968
		<안병욱 에세이 선집> 수록	삼성출판사	1972
		<안병욱 에세이 선집> 수록	삼육출판사	1992

	초판 도서명	증보개정 및 재출간	출판사	출판년
11	<A교수 에세이 21장>	-	박우사	1968
		<지성과 사랑의 향기>로 <안병욱 에세이 선집> 수록	삼성출판사	1972
		<영원한 자유인>으로 증보개정	삼육출판사	1983
12	<휴머니즘>	-	민중서관	1969
		<휴머니즘 사상>	삼육출판사	1976
		<인간, 이 고귀한 존재>	삼육출판사	1980
		<휴머니즘>	삼육출판사	1986
13	<아름다운 창조>	-	삼육출판사	1969
		<안병욱 에세이 선집> 수록	삼성출판사	1972
14	<도산사상>	-	대성문화사	1970
		-	삼육출판사	1972
15	<진리의 샘터에서>	-	삼육출판사	1970
		<안병욱 에세이 선집> 수록	삼성출판사	1972
16	<내 영혼이 고독하거든>	-	중앙출판공사	1971
		<안병욱 에세이 선집> 수록	삼성출판사	1979
17	<너와 나의 만남>	-	삼육출판사	1971
18	<고뇌를 넘어서 환희로>	-	중앙출판공사	1973
		<안병욱 에세이 선집> 수록	삼성출판사	1979
19	<조국의 앞날을 생각하며>	-	교학사	1973
20	<뜻이 있는 곳에 길이>	-	삼육출판사	1974
21	<내일 지상에 종말이 올지라도>	-	삼육출판사	1974
22	<안병욱 인생론>	-	아카데미	1975
		-	삼육출판사	1989
		<인생론>	철학과현실사	1998
23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	아카데미	1975
		<좌우명 365일>	아카데미	1978
		<좌우명 365일>	삼육출판사	1988
24	<희망의 철학>	-	아카데미	1976
		<안병욱 희망론>	아카데미	1979
		<안병욱 희망론>	삼육출판사	1989
25	<지혜롭게 사는 길>	-	삼육출판사	1977

	초판 도서명	증보개정 및 재출간	출판사	출판년
26	<오직 하나뿐인 이 생명을>	-	갑인출판사	1976
27	<사랑과 지혜 그리고 창조>	-	정우사	1978
			삼육출판사	1995
28	<미와 진실의 합창>	-	여원문화사	1979
		-	삼육출판사	1990
29	<이상의 별을 바라보며>	-	문학예술사	1979
		증보개정판	삼육출판사	1989
30	<새 한국인의 사명> (회갑기념저서)	-	삼육출판사	1980
31	<운명과 자유의 교향악>	-	여원출판국	1981
32	<생의 푸른 초원에서>	-	삼육출판사	1982
33	<명상의 창가에서>	-	아카데미	1984
34	<젊은이여 희망의 등불을 켜라>	-	자유문학사	1985
35	<한 그루 진실의 나무를 심을 때>	-	자유시대사	1985 1990
36	<삶의 길목에서>	-	자유문학사	1986
37	<이 아름다운 생명을>		?	1986
38	<내 생의 거울 앞에서>	-	자유시대사	1987
39	<인생, 그 순간에서 영원까지>	-	자유시대사	1987
40	<사색이 흐르는 강가에서>	-	자유시대사	1987
41	<사랑은>	-	자유시대사	1987
42	<내일 지상에 종말이 올지라도>	-	삼육출판사	1988
43	<산다는 것>	-	문학사상사	1988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삼육출판사	1997
44	<안병욱 명상록>	-	삼육출판사	1989
45	<빛과 생명의 안식처>	-	삼성이데아서적	1989
		-	삼성출판사	1991
		-	철학과현실사	1990
46	<세계사와 민족의 이상>	<한국인아, 세계를 향해 달리자> (고희기념저서)	삼육출판사	1994

	초판 도서명	증보개정 및 재출간	출판사	출판년
47	<처음을 위하여 마지막을 위하여>	-	자유문학사	1990 1995
		-	백갑문학사	1998
48	<인생론>	-	철학과현실사	1993
49	<삶의 완성을 위하여>	-	철학과현실사	1994
50	<사람답게 사는 길>	-	자유문학사	1996
51	<논어 인생론>	-	자유문학사	1996
		-	철학과현실사	2010
52	<뜻을 세우고 삼시다>	-	자유문학사	1997
53	<때를 알아라>	-	자유문학사	1998
54	<후회 없이 살아라>	-	자유문학사	1998
55	<나를 위한 인생 12장>	-	자유문학사	2000
56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	-	자유문학사	2001
57	<수필로 읽는 동양고전>	-	철학과현실사	2003
58	<길 도(道)>	-	자유문학사	2005
59	<철학의 즐거움>	-	계명사	2007

2. 이당 안병욱 교수 <사상계> 기고문(번역 및 저술) 목록 (좌담 제외)

1. 「回顧와 展望: 화이트헤드의 對話, 루우썬 프라이스 (安秉煜 譯). 13호(1954년 8월)
2. 「歷史는 矛盾할 수 있는가?」, 라인홀드 니버 (安秉煜 譯). 14호(1954년 9월)
3. 「世界史의 課題: 世界平和에 對한 構想」, 버틀랜드 러셀 (安秉煜 譯). 16호 (1954년 11월)
4. 隨筆 「貧困의 族譜」, 安秉煜. 20호(1955년 3월)
5. 「實存主義의 系譜」, 安秉煜. 21호(1955년 4월)
6. 「大學生活의 反省」, 安秉煜. 23호(1955년 6월)
7. 「自由의 倫理」, 安秉煜. 25호(1955년 8월)
8. 「휴머니즘」, 安秉煜. 28호(1955년 11월)
9. 「生의 哲學」, 安秉煜. 29호(1955년 12월)
10. 「虛無主義」, 安秉煜. 31호(1956년 2월)

11. 「實存主義」, 安秉煜. 32호(1956년 3월)
12. 「現代的 世界觀(上)」, 安秉煜. 33호(1956년 4월)
13. 「現代的 世界觀(下)」, 安秉煜. 34호(1956년 5월)
14. 「슈바이처: 生の哲學者」, 安秉煜. 35호(1956년 6월)
15. 「소크라테스」, 安秉煜. 37호(1956년 8월)
16. 「連載敎養-思想과 生涯 ②: 續 소크라테스」, 安秉煜. 38호(1956년 9월)
- 17 「連載敎養-思想과 生涯 ③: 플라톤」, 安秉煜. 39호(1956년 10월)
18. 「文化에 對한 情熱: 民族의 存在 理由」, 安秉煜. 41호(1956년 12월)
19. 「連載敎養-思想과 生涯 ④: 베이컨(Bacon)」, 安秉煜. 44호(1957년 3월)
20. 「새로운 世界觀의 模索」, 安秉煜. 45호(1957년 4월)
21. 「社會機構와 휴머니즘」, 安秉煜. 51호(1957년 10월)
22. 「존·와일드 著 「實存主義哲學」」, 安秉煜. 55호(1958년 2월)
23. 「金斗憲著 道義原論」, 安秉煜. 56호(1958년 3월)
24. 「思想과 生涯 22-벨그송」, 安秉煜. 60호(1958년 7월)
25. 「實存主義의 思想의 系譜」, 安秉煜. 61호(1958년 8월)
26. 「自由의 아포리아 : 自由概念의 史的展開를 중심으로」, 安秉煜. 65호(1958년 12월)
27. 「肉體의 智慧」, 安秉煜. 67호(1959년 2월)
28. 「旣成秩序에 對한 레지스탕스의 構造」, 安秉煜. 69호(1959년 4월)
29. 「나의 逢變記」, 安秉煜. 70호(1959년 5월)
30. 「歷史의 알파와 오메가: 自由史觀의 構造」, 安秉煜. 75호(1959년 10월)
31. 「파스칼著 申相楚譯 팡세」, 安秉煜. 76호(1959년 11월)
32. 「휴머니즘의 系譜」, 安秉煜. 77호(1959년 12월)
33. 「‘言語의 意味’의 發見者: 비트겐슈타인의 人間과 哲學」, 에리히 헬러(安秉煜 譯). 78호(1960년 1월)
34. 「言語形式에서 導出되는 誤解: 비트겐슈타인의 人間과 哲學(下)」, 에리히 헬러 (安秉煜 譯). 79호(1960년 2월)
35. 「利의 世代와 義의 世代」, 安秉煜. 83호(1960년 6월)
36. 「旅愁記」, 安秉煜. 87호(1960년 10월)
37. 「哲學은 生活속에 있다」, 朴鍾鴻, 安秉煜. 90호(1961년 1월)

38. 「哲學과 人間의 行動」, 시드니 후크(安秉煜 譯). 94호(1961년 5월)
39. 「덧셀과의 對話: 知性·行動·自由의 人間」, 安秉煜. 111호(1962년 9월)
40. 「言語의 論理的 分析: 카르나프의 印象」, 安秉煜. 113호(1962년 11월)
41. 「40고개」, 安秉煜. 116호(1963년 1월)
42. 리포트, 「現代哲學思潮의 系譜: 이데아와 로고스의 哲學에서 리얼리티와 파토스의 哲學으로」, 安秉煜. 119호(1963년 3월)
43. 「自由와 民主主義의 確立」, 安秉煜. 120호(1963년 4월)
44. 「나와 咸錫憲先生」, 安秉煜. 120호(1963년 4월)
45. 「손의 哲學」, 安秉煜. 122호(1963년 6월)
46. 「美와 眞實의 探求: 레오날도·다빈치의 人間像」, 安秉煜. 123호(1963년 7월)
47. 「倦怠보다는 죽음음: 레오날도·다빈치의 人間象」, 安秉煜. 124호(1963년 8월)
48. 「不滅의 巨人: 레오날도·다빈치의 生涯」, 安秉煜. 125호(1963년 9월)
49. 「近代의 프로메두스: 레오날도 다 빈치의 藝術」, 安秉煜. 126호(1963년 10월)
50. 「韓國의 등불이 될 두冊: 『島山 安昌浩』와 『뜻으로 본 韓國歷史』」, 安秉煜. 127호(1963년 11월)
51. 「孤高의 精神」, 安秉煜. 129호(1963년 12월)
52. 「4月の 太陽을 바라보라!: 젊은 生命들이여 땅의 소금이 되자」, 安秉煜. 132호(1964년 4월)
53. 「調和의 感覺」, 安秉煜. 136호(1964년 7월)
54. 「必然과 自由의 對話: 야스퍼스의 歷史觀을 中心으로」, 安秉煜. 138호(1964년 9월)
55. 「背信과 報復의 反倫理: 言論人의 姿勢와 政治人의 모랄」, 安秉煜. 139호(1964년 10월)
56. 「죽음의 哲學: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어야 하나」, 安秉煜. 140호(1964년 11월)
57. 「사랑과 信念과 使命: 새 해에 젊은 學生에게 주는 隨想」, 安秉煜. 142호(1965년 1월)
58. 「越南에 平和를 가져오는 길: 美國政策을 批判하는 越南 知性人의 소리」, 황반지(安秉煜 譯). 145호(1965년 4월)
59. 「옆에서 지켜본 「思想界」 12年: 批判과 抵抗의 精神史」, 安秉煜. 145호(1965년 4월)

60. 「사랑에 의한 革命: 낡은 不正의 秩序에 挑戰하는 非暴力의 哲學」, 마틴 루터 킹 (안병욱 譯). 147호(1965년 6월)
61. 「解放 20年の 反省: 우리는 그 날을 몇몇이 回想할 수 있는가?」, 安秉煜. 150호 (1965년 8월)
62. 「슈바이처의 生涯와 思想」, 그의 逝去에 부치는 글, 安秉煜. 152호(1965년 10월)
63. 「民衆의 證: 咸錫憲翁 60年の 발자취」, 咸錫憲, 安秉煜. 154호(1965년 12월)
64. 「知와 美의 饗宴: 希臘의 人間像」, 安秉煜. 155호(1966년 1월)
65. 「創造者와 被造者의 對話: 基督教의 人間像」, 安秉煜. 156호(1966년 2월)
66. 「解放後 20年の 精神의 變貌」, 車基璧, 申一澈, 洪承勉, 安秉煜. 156호(1966년 2월)
67. 「新프로메테우스의 誕生: 近代의 人間像 (1)」, 安秉煜. 157호(1966년 3월)
68. 「近代人의 意識構造: 近代의 人間像(2)」, 安秉煜. 158호(1966년 4월)
69. 「人間의 獨立宣言: 近代의 人間像(3)」, 安秉煜. 159호(1966년 5월)
70. 「現代哲學思想① 實用主義哲學」, 安秉煜. 159호(1966년 5월)
71. 「進歩에의 意志: 近代의 人間像(4)」, 安秉煜. 160호(1966년 8월)
72. 「나와 너의 倫理」, 安秉煜. 161호(1966년 9월)
73. 「金容基씨의 生活哲學」, 金容基, 安秉煜. 162호(1966년 10월)
74. 「李光洙의 『民族改造論』: 民族100年大計를 構想한 大經綸의 書」, 安秉煜. 165호(1967년 1월)
75. 「휴머니즘의 아포리아」, 安秉煜. 167호(1967년 3월)
76. 「現代의 三綱五倫」, 安秉煜. 177호(1968년 1월)
77. 「<힘을 기르소서>: 島山 逝去 30周忌에 붙이는 글」, 安秉煜. 179호(1968년 3월)
78. 「歷史를 보는 눈」, 安秉煜. 180호(1968년 4월)
79. 「文化活動의 暗中摸索② 創造와 混沌의 章: 思潮의 변천」, 安秉煜. 184호 (1968년 8월)
80. 「韓國大學生의 價値觀」, 安秉煜. 187호(1968년 11월)
81. 「나와 너와의 만남: 和와 誠과 敬의 秩序」, 安秉煜. 188호(1968년 12월)
82. 「韓國的 志士道란 무엇인가」, 安秉煜. 195호(1969년 7월)
83. 「民主教育者論: 御用學者는 專制政治의 遺物이다」, 安秉煜. 197호(1969년 9월)
84. 「<이 사람을 보라> 眞實과 非暴力의 聖雄: 간디의 탄생 100周年을 기념하는

글], 安秉煜. 198호(1969년 10월)

85. 「칼의 힘과 펜의 힘」, 安秉煜. 200호(1969년 12월)
86. 「러셀의 人間과 生涯: 抵抗의 97年」, 安秉煜. 203호(1970년 3월)
87. 「러셀의 人間과 思想: 創造의 哲學-러셀의 基本思想(1)」, 安秉煜. 204호(1970년 4월)
88. 「自由의 哲學」, 安秉煜. 205호(1970년 5월)

▣ 참고문헌

김신, 『대학별곡』 소설문학사, 1983.

김재실, 「서울대아카데미 태동 전야를 회상하며」, 서울대학교아카데미 50년사 발간위원회 저, 『진리와 정의를 찾다: 서울대학교아카데미 50년사』, 홍사단, 2020.

박경수, 『장준하: 민족주의자의 길』 돌베개, 2003.

베어드, 리처드, 송실대학교 뿌리찾기위원회 역주, 『윌리엄 베어드』 송실대학교 출판국, 2016.

안병욱, 『인생론』 도서출판 아카데미, 1978.

안병욱, 「나와 너의 윤리」, 『思想界』 1966년 9월호.

이범, 「홍사단 운동의 철학적 기초」, 2005년 6월 11일 <홍사단운동연구소 제5차 비전포럼> 발표문. <http://www.yka.or.kr/> 참조.

EBS 영상 프로그램, <나의 학창시절> 1994년 6월 2일 녹화하고 12일 방영.

blog.naver.com/kwank99?Redirect=Log&logNo=30024010980 『사상계』의 특색과 역사 관련.

〈Abstract〉

The Life and Philosophy of Yi-Dang,
Ahn Byung-Wook

Kim, Seon-Wook

This article is written to overview Professor Ahn Byung-Wook's life and works. He was born on the 20th of June, 1920 and died on the 26th of August, 2018. During the most of his career, he worked for the Department of Philosophy, Soongsil University as a professor. He had been a teacher for college students and for Korean citizen in large as well. He made a great contribution to Heungsadan (Young Korean Academy) from its re-establishment (its original founder is Ahn Chang Ho) upto his own death; also to the education of Korean citizens as the chief editor of Sasangkye from the end of 1950s to the early of 1970s. After 1970, he gave a lot of lectures to Korean public and wrote all 59 books.

Key Words : Ahn Byung-Wook, Soongsil University, Young Korean Academy, Sasangkye, Philosophy